

개인 · 가족 · 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Related Variables
o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s in Middle School Students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석 사 이 은 정*
교 수 장 윤 옥**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

Master : Lee, Eun-Jeong

Professor : Jang, Yoon-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variables that had an effect o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in middle school students. Independent variabl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individual-related variables, family-related variables, and school-related variables. The individual-related variables were gender difference, academic year,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fficacy. The family-related variables wer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communication about career with parents, parental support, sibling's support, and value orientation of the family. The school-related variables included communication about career with friends, teacher's support, and friend's suppor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90 students who were selected at random from first, second, and third grade of middle school in Daegu. A questionnaire was used for the survey. It consisted of a career attitude maturity scale, a self-efficacy scale, a communication scale, a value orientation of the family scale, and a social support scale. The data was analyzed by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among the individual-related variables that had an effect o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in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affected all sub-factors of how mature they were in matters relating to career. Academic achievement affected decisiveness and preparation-- maturity of career attitude sub-factors. And gender difference and academic year affected preparation and goal orientation.

Second, the results of the family-related variables that had an effect o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s in middle school students were that communication about career with parents affected decisiveness, preparation, and confidenc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sub-factors, socio-economic status of the family and sibling's support affected confidence. And value orientation of the family affected goal orientation and independence.

Third, the results of the school-related variables that had an effect on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in middle school students were that communication about career with friends affected preparation-- a maturity of career attitude sub-factor; teacher's support affected decisiveness, preparation, and confidence; and friend's support affected confidence and independence.

Fourth, decisiveness, preparation, and confidence among the maturity of career attitude sub-factors were affected the most by individual variables. And self-efficacy was the most significant. Goal orientation and independence were affected the most by family-related variables.

▲주요어(Key Words) : 진로태도성숙(career attitude maturity), 중학생(middle school student),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communication about career with parents)

* 주 저 자 : 이은정 (E-mail : zcool_coolz@hanmail.net)

** 교신저자 : 장윤옥 (E-mail : yojang@mail.knu.ac.kr)

I. 서론

인간은 평생동안 끊임없이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그 중 진로에 대한 선택은 인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의 하나로서 현명한 진로선택은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게 하여 보다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그러나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와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더욱 더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 직업들 속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않다. 실제 청소년들에 있어서 진로문제는 학업문제 다음으로 큰 스트레스원이며(강은정 등, 2006), 공부, 외모 등과 더불어 주된 고민거리 중의 하나이다(이종원 · 박창남, 2004; 통계청, 2006). 이는 청소년들이 진로결정을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에서는 진로전문가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진로선택과 관련된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해 주고 올바른 진로발달에 관한 지침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진로선택은 어느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발달되어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진로발달은 진로에 대한 인식, 탐색, 계획, 준비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도 이러한 진로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는 학교장면에서 일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로서, 자신과 직업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특히 중학생 시기는 자신의 존재와 능력,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단계이다(장석민, 1985). 이 시기는 진로인식 및 적응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시기와 본격적으로 진로준비를 하는 고등학교 시기와와의 중간 단계로서 청소년이 직업을 선택하고 일의 세계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탐색을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일생에 있어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중학생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 비해 진로선택에 대한 비중이 크지 않지만 미래에 진로를 선택·결정하기 위해 활발히 탐색하는 시기에 있으므로 현재의 진로탐색활동의 정도 및 진로태도는 미래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중학생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인지적 능력이 크지 않고 진로선택능력도 완전하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진로지도가 더욱 요구된다. 따라서 중학생의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하여 이들의 진로발달단계에 대한 이해와 진로태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중학생의 진로지도에 활용하여 그들의 진로태도를 성숙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로태도는 개인이 진로선택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를 의미

하며 이 태도의 발달을 진로태도성숙이라고 한다. 진로태도성숙은 진로에 대한 결정성, 준비성, 확신성, 목적성, 독립성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자신의 진로선택 및 결정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독립적이며 확고한 진로태도의 발달을 의미한다(이기학, 1997). 이는 개인적 특성 및 사회환경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데(Fouad, 1993) 특히 청소년들의 진로태도성숙은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가정과 학교와 관련된 특성들의 영향을 받는다.

지금까지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해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관련 변인들로 성별(구혜선, 2002; 신미자, 2002; 이두만, 1998; 이기학, 1992; 조아미, 2002), 학년(신윤득, 2006; 이승미, 2005), 학업성적(구혜선, 2002; 류천희, 2005), 정서지능(강주영, 2006), 낙관성(권혜경 · 이희경, 2004), 자아존중감(이기학, 1997; 최효순, 2002), 자기주장성(이기학 등, 2004), 직업가치(이기학 · 한종철, 1998), 내외통제성(이기학, 1997),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기학 등, 2004), 성역할 정체감(지용근, 2005), 자기효능감(구혜선, 2002; 김재호, 2006; 서정선, 2002; 이은혜, 2003), 역기능적 진로사고(김수리 · 이재창, 2007) 등을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개인관련 변인들 중에서 성별, 학년, 학업성적은 일관되게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연구자에 따라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진로태도성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구혜선, 2002; 서정선, 2002)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 학년, 학업성적, 그리고 자기효능감을 개인관련 변인으로 선택하여 이들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반적인, 그리고 일관된 검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적합한 진로지도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가정은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양식, 행동방식, 습관과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의 장으로써 가족구성원들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최초로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환경이기도 하다. 특히,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 가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지금까지 연구된 진로태도성숙과 관련된 가족관련 변인으로는 부모의 학력 및 직업(서정선, 2002; 최효순, 2002), 가정의 소득수준(류천희, 2005; 서정선, 2002), 모의 취업여부(이상길, 2002), 부모의 양육태도(류천희, 2005; 지용근, 2005), 부모지지(김수리 · 이재창, 2007), 가족체계(김재호, 2006; 이상길, 2002), 가정의 가치지향성(김미진, 2002; 이은혜, 2003),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이상길, 2002), 부모애착(강주영, 2006)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상의 가족관련 변인들 중에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일관성 있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하고 있거나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하나 선행연구에서 자주 연구되고 있지 않은 가정의 사회

· 경제적 지위,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부모지지, 형제지지, 그리고 가정의 가치지향성 등을 가족관련 변인으로 구성하여 이들 변인들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및 이들의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포괄적인 연구는 가정에서의 자녀에 대한 진로지도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많은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므로 학교는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옥분, 2006: 446)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학교환경이 가정환경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연구된 학교관련 변인으로는 실업계와 인문계의 차이(서정선, 2002; 이기학·한종철, 1998), 남녀 공학과 별학 여부(서정선, 2002), 교사지지와 친구지지(김이선, 2006), 진로 집단상담의 유무(서미경, 2006) 등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교사, 친구 등과의 의사소통이나 지지와 같은 학교환경 변인들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과 교사 지지 및 친구지지를 학교관련 변인으로 선택하여 이들 변인들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제공하는 정보는 학교에서의 청소년의 진로지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태도성숙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주로 특정한 단일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개인의 발달에는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듯이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환경 변인의 영향도 그러할 것이므로 이들 변인들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만을 살펴보기보다는 이들의 영향을 전체적으로, 동시에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다양한 변인들을 개인관련 변인, 가족관련 변인, 학교관련 변인으로 분류하여 이들 변인들이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인 결정성, 준비성, 확신성, 목적성,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탐색 단계에 있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진로지도 및 상담에 보다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각 개인에게 적합한 진로지도 및 상담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진로태도가 더욱 성숙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원만한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개인관련 변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자기효능감)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결정성, 준비성, 확신성, 목적성,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족관련 변인(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부모지지, 형제지지, 가정의 가치지향성)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학교관련 변인(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교사지지, 친구지지)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개인관련 변인, 가족관련 변인 및 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진로태도성숙

진로태도란 자신의 진로선택 및 결정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의미한다(김재호, 2006). 이는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는 것으로 발달이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기학, 1997). 발달이론에서는 진로태도가 일회적, 순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달해 가며, 이러한 진로태도의 발달은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김충기, 2000: 50)고 본다. 대표적인 발달이론가인 Super 등(1990)은 진로태도의 발달이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 중 중학생의 시기는 성장기 단계의 능력기(13~14세)부터 탐색기 단계의 잠정기(14~17세)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능력기에는 자신의 능력을 중시하게 되고 잠정기에는 진로선택에서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자아관 및 성격 등을 고려하며, 토의나 경험을 통해서 직업을 탐색하고 잠정적으로 직업선택을 시도하게 된다고 한다.

진로태도성숙은 자아 및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기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연령 혹은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되고 있다(장석민 등, 1991). 또 이기학(1997)은 진로태도성숙을 자신의 진로선택 및 결정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독립적인, 그리고 확고한 태도의 발달로 정의하면서 이것의 하위요인을 결정성, 준비성, 확신성, 목적성, 독립성으로 분류·제시하고 있다. 그는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은 자신이 선택하려고 의도하는 진로 및 직업을 확실하게 정하고 있는 정도를, 준비성은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 준비 및 계획 정도를, 그리고 직업 및 진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정도를 의미한다고 한다. 확신성은 앞으로 선택할 진로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 정도를 의미하며, 목적성은 진로를 선택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으로, 진로선택 시 경제적인 보상, 승진 기회, 장래 전망 등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가 아닌 일을 통한 자기개발, 대인관계 등과 같은 자아실현적인 요소를 선호하는 정도를, 독립성은 진로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는가 즉, 진로선택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특성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을 둘러싼 환경,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가정 및 학교와 관련된 특성들이 함께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을 위해 본인 혹은 주변 환경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중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을 위한 진로지도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관련 변인

1) 성 별

진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관련 변인 중 선행연구에서 가장 자주 다루어진 변인으로 성별 변인을 들 수 있으나 그 연구들은 연구자에 따라, 그리고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진로태도성숙을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일관성 없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학, 1997)에서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두만, 1998), 그리고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남미영, 2002; 박용관, 2003)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구혜선(2002), 신미자(2002), 조아미(2002)의 연구들에서는 중학생의 진로성숙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로태도성숙에 있어 남녀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이상무(2004)는 진로태도성숙의 차이는 직업선택성이나 직업훈련 또는 성격, 흥미, 능력 등의 개인차에서 오는 것인지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중학생(류천희, 2005)과 고등학생(서정선, 2002; 이기학·한중철, 1998)을 대상으로 성별과 진로태도성숙을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들 모두가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과 목적성이, 그리고 이송미(2005)는 준비성과 결정성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다고 한다.

이처럼 성별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그리고 연구대상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진로태도성숙을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일관성 없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때, 이들 연구결과들이 성별에 따른 효과적인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학 년

진로태도성숙은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해 발전·성장하는,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이므로(이기학, 1997) 연령 또는 학년은 진로태도성숙의 중요한 지표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이송미(2005)는 중학교 2학년이 1, 3학년에 비해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이 더 높다고 한 반면 신윤득(2006)은 중학교 3학년이 2학년에 비해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이 더 높다고 한다. 한편 초등학생을 연구한 김재호(2006)는 초등학교 6학년이 5학년보다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더 높다고 한다. 그러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학·한중철, 1997)에서는 학년에 따라 전체 진로태도성숙 정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1학년이 2학년보다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과 현실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보고하는 반면에 이들의 또 다른 연구(이기학·한중철, 1998)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전체 진로태도성숙도 및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과 독립성이 더 낮고, 결정성은 더 높다는 일관성 없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들과는 달리 서정선(2002)은 고등학교 2학년이 1학년보다 전체 진로태도성숙 정도와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 준비성, 그리고 확신성이 더 높다고 하면서 이는 고등학생은 대학 입시가 가까워질수록 진로에 대한 고민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진로태도성숙이 발달이론에 근거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령보다는 초·중·고등학교에 따른 학교 상황이 학생들에게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의 학교 단계 및 학년에 따른 각 하위요인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에 일관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정도와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중학교에서의 학년에 따른 진로지도의 방향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학업성적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계획을 잘 세우고, 진로결정에 필요한 사전 이해와 준비를 잘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능력이 높고, 직업선택 시 자신의 흥미나 성격을 이해하며 진로의사결정능력 또한 잘 갖추어져 있다(공인규 등, 2007)고 한다.

구혜선(2002)은 성적이 상위권인 중학생이 중·하위권 중학생보다 전체 진로태도성숙 정도와 이것의 계획성과 독립성이, 김이선(2006)은 성적이 상·중위권인 중학생이 하위권의 중학

생보다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이, 그리고 김정미(2007)와 류철회(2005)는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과 확신성이 더 높다고 한다. 또 이승미(2005)의 연구에서도 성적이 높은 중학생일수록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과 준비성, 그리고 확신성이 더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고등학생(서정선, 2002) 및 초등학생(강판구, 1997; 나인애, 1999)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여러 연구결과들에서 학업성적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중학생들의 학업성적 수준에 따른 진로태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에 적합한 진로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행동들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은 특정행동의 수행 혹은 행동변화를 결정하는 중재 요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진로결정과정에서 인지적 능력에 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동기 수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Betz & Luzzo, 1996).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과업을 수행·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승미(2005)는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의 모든 하위요인들과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조미영(2007)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중학생일수록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 확신성, 독립성이 더 높고 자기효능감은 특히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재호(2006)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모든 하위요인의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더 높고, 특히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과 확신성에서 더 높은 설명력을 보이며, 최은희(2007)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전체 진로태도성숙 및 모든 하위요인의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더 높다고 한다.

3.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1)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 중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 및 직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리적 환경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가정의 사회 및 경제적 환경이 그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의미하며 이는 청소년의 학습방법이나 부모와의 동일시, 직업에 관한 간접경험 등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임병희, 1996; 박용관, 2003).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진로태도성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구성하는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 직업 등 개별적인 변인 각각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고 있다.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엠브레인(2007)의 조사결과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자녀 중에서는 76.1%가, 100만원 이하 가정의 자녀 중에서는 46.9%만이 진로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어 부모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구혜선(2002)의 연구에서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표하는 한 요소인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진로성숙도가 더 높았다. 중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른 진로태도성숙의 차이에 관한 연구(류철회, 2005)에서는 가정의 경제수준을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중학생이 매우 어렵다고 지각하는 중학생보다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이 유의미하게 더 높지만 가정의 경제수준을 보통이거나 어렵다고 지각하는 중학생이 매우 풍족하다고 지각하는 중학생보다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이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수준을 어렵다고 지각할수록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이 더 높았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이선(2006)은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이, 박종은(2006)은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과 확신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최인실(2004)은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행정직일 때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과 확신성이 가장 높게, 그리고 단순노무직일 때 준비성과 확신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서정선(2002)도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 진로태도성숙 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직업 및 가정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더 높으며, 특히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과 확신성이 더 높다고 한다.

한편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과 직업을 모두 포함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학교 2학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이두만(1998)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생의 진로의식이 더 성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반면에 박용관(2003), 이승국(2000)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정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선행연구들처럼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 직업 등 각각의 개별적인 변인들보다 이들 변인들의 상호작용까지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으로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때 청소년의 전반적인 물리적 가정환경의 영향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가정 내에서 자녀는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관계의 기초를 배우며 가치, 태도, 규범을 내면화하고 주체 의식을 형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욕구 충족 및 안정감과 자신감을 획득하게 된다. 이처럼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인격형

성과 사회화 및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허철수·양민철, 2006).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얼마나 자주 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등은 자녀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임정빈 등, 2004: 190). 또한 부모·자녀 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인 위험 노출을 감소시키기도 한다(이상길, 2002).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모로부터 정보나 조언을 얻는 시기이기도 하므로 청소년들은 진로결정과 진로계획 시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고 있다(금명자, 2003). 다시 말하면 부모와 자녀 간에 진로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부모는 현재 자녀의 진로태도 발달 정도와 미래의 진로에 대한 입장이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고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백남근(2002)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옥숙(2001)의 연구에서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녀의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더 높았으나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은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적게 지각할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신주연(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전체 진로태도성숙 정도 및 독립성을 포함한 진로태도성숙의 모든 하위요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길(2002)도 어머니와 여고생 자녀와의 축진적 의사소통은 여고생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어머니가 여고생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에 대해 깊은 관심과 존중을 전달하며, 구체적이고 명료한 표현을 통해 자녀의 자기 탐색을 촉진하는 것이 여고생의 진로태도성숙에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진로태도성숙에 관한 연구는 의사소통 유형과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이 연구들도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고, 또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및 다른 변인들과의 상대적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3) 부모지지

부모를 포함한 형제, 친구, 교사 등 가까운 주변인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 등 여러 형태의 사회적 지지 자원은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과 개인의 심리적 적응 및 좌절 극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노미순, 1999; Astin, 1984; Lent et al., 1994).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직업계획의 수준이 높으며(이성도, 2003), 특히 교사, 친구 등의 지지에 비해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유영미·문승태, 2005).

부모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그리고 청소년기까지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지지원으로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에도 부모가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제공자이다(심미희, 2002).

지용근(2005)은 부모의 합리적·애정적·성취지향적 양육 태도와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은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면서 진로태도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최은희(2007)도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지지가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의 계획성과 일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수리와 이재창(2007)은 부모지지와 전체 진로태도성숙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은 더 높았다고 한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수리(2005)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미순(1999)의 연구에서도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태도성숙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부모의 긍정적인 지지가 자녀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진로지도에 있어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형제지지

형제는 일생동안 서로에게 신체적·정서적인 접촉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며, 사회화의 대리인으로 서로에게 최초이자 가장 강력한 또래관계를 제공하는 관계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형제는 겉보기에는 모호한 것처럼 보이나 학교 문제, 성 문제 및 여러 다른 문제들로 고민할 경우 서로에게 조언자 및 상담자 역할을 한다(전귀연·임주영, 2006: 15-17). 형제는 혈연으로 이어진 영속적 관계이며 한 가정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부모와의 관계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 반면, 연령이 비슷하다는 점에서는 친구관계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형제는 부모, 친구와 더불어 청소년에게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모와 친구가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지지원이다. 형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형제관계는 동료애를 바탕으로 한 평등한 관계로 수평적 사회관계망의 기초가 된다. 청소년은 이를 통해 주요한 사회적, 인지적 기술을 터득하고 애정, 도움, 인정 등의 다양한 지지를 제공받는다. 다시 말하면 형제간의 권위적, 방어적, 경쟁적 또는 우호적 관계의 질은 가정 밖에서의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고 형제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다양한 경험은 그들의 정서적, 지적 행동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뿐만 아니라 형제간

의 풍성한 인간관계 경험은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서정아, 2007; 심미희, 2002).

이처럼 형제지지는 부모지지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 사회적 지지원이지만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지지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만을 알아보거나(노미순, 1999) 사회적 지지를 부모지지, 형제지지로 분류하지 않고 이들을 가족지지로 명명하고 이것의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최은희, 2007). 따라서 형제의 지지를 중요한 사회적 지지 변인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5) 가정의 가치지향성

가정의 가치지향성이란 인생초기부터 가족구성원의 생활원리로 시사받는 가정의 생활신조를 의미한다(정원식, 1998). 이로 인하여 가족구성원의 행동은 규제를 받게 되고 이로부터 이탈하는 행동을 할 때 죄의식을 느끼게 된다.

정원식(1998)은 한 가정을 지배하는 가치지향성의 유형을 물질지향주의, 사회상승주의, 전통주의로 분류하면서 물질지향주의란 금전, 재산, 기타 물질적인 풍성과 부의 추구를 생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또 사회상승주의는 가족구성원이 권력, 명예, 체통 있는 사회적 지위에 속하기 위해 강력한 압력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을, 전통주의는 이미 확립되어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규범, 생활방식, 금기, 통념, 인습 등을 따르려는 경향을 의미한다고 한다.

가풍, 전통 등 가족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가치 체계를 의미하는 가정의 가치지향성은 개인의 성장과정을 통해 내면화 되어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가치관이 뚜렷한 청소년일수록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되는 직업을 탐색·선택·결정할 수 있게 된다(장석민, 1994)고 한다. 이것은 가정의 가치지향성이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을 연구한 김미진(2002)은 가정의 가치지향성은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가정의 전통주의 및 사회상승주의 가치지향성이 강할수록 중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진로문제를 타인에게 의존하려 하며, 진로선택에 필요한 사전이해와 준비의 정도도 낮다고 한다. 또한 가정의 사회상승주의 가치지향성이 강할수록 중학생은 자신의 진로선택에 있어 혼란을 느끼며, 가정의 물질지향주의 가치지향성이 강할수록 중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말한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류미화(2002)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진로결정 스트레스와는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정아(2003)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가치지향성이 진로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정의 물질지향주의 가치지향성은 진로태도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사회상승주의나 전통주의 가치지향성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은혜(2003)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상승주의 가치지향성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이 더 높고, 가정의 전통주의 가치지향성이 높을수록 준비성은 더 높은 반면 목적성은 더 낮으며,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과 확신성에는 가정의 가치지향성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가정의 가치지향성이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가치관이 명료화될수록 진로태도성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이 보다 명확해지고, 진로선택 및 결정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기준에 따라 결정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가정의 가치지향성 정도는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 목적성, 독립성에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4.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관련 변인

1)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친구란 비슷한 연령 또는 비슷한 성숙 수준에 있는 존재로서(정옥분, 2008: 339) 공통적인 관심과 문제, 고민을 함께 나누는 관계이다(최정미·김미란, 2003). 청소년은 친구에 의해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진로선택도 달라질 수 있다. 친구는 진로발달에 있어 같이 진로를 탐색하는 동료로서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청소년은 친구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수평적 지식이나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 데 또래집단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은 성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정옥분, 2008: 410). 그리고 또래와 진로와 관련된 대화를 자주 하는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해 전혀 대화하지 않는 청소년들보다 더 활발하게 진로탐색 활동을 하며 진로정보를 더 열심히 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Baerbel, 2002)를 통해 볼 때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진로태도를 성숙시키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친구와의 의사소통, 특히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과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사지지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조직 및 기관의 확대, 교육기간의 연장

등으로 학교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되었다. 따라서 부모 다음으로 청소년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인 교사는 청소년의 지적 성장은 물론 정서적, 사회적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심미희, 2002), 특히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준다(구자은, 2000).

교사의 지지가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김이선(2006)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과 준비성, 그리고 확신성이 높다고, 최은희(2007)는 교사지지는 초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신혜정(2005), 임유진(2001)은 청소년이 부모·친구의 지지에 비해 교사의 지지를 가장 적게 지각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결과는 학교환경에서 교사가 학업위주의 교육을 하고, 교육과정 외의 잡무에 시달리는 현실에 있어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지나 이해를 하는 부분이 부족하여 나타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교사의 긍정적 지지가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얼마나 교사의 지지가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3) 친구지지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는 시기로 청소년들은 보다 많은 또래와 접촉하게 되고 가족, 혹은 교사와의 관계보다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며 친구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어(김이레, 2003)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지지는 감소하는 대신에 친구의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게 되므로(노미순, 1999; Helsen et al., 2000) 이 시기의 친구의 지지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Ladd 등(1996)은 어린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때 친구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서의 자신감이 더 높다고 한다. 또한 허재경과 김유숙(2005)은 청소년이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이들 연구들과 관련시켜 볼 때 신은영과 김누리(2004), 허유미(2007)가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조명실(2007)은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이 높다고 하는 연구결과들도 친구의 지지는 자아개념 및 자아정체감을 향상시키고 이들은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이선(2006)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원 중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이 더 높다고 하면서 자신의 진로문제를 독립적·주체적으로 결정하는 데에 친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며 진로태도성숙에 친구의 지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5개 중학교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07년 11월 2일에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학생 1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한 다음 2007년 12월 17일에서 12월 21일 사이에 걸쳐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중학교의 남·녀 학생 67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622부였으며, 이 중 부실 기재 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한 49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진로태도성숙 척도

진로태도성숙 척도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총 47문항으로 구성된 이기학(1997)의 척도를 중학생 수준에 적합한 어휘 및 문장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즉 자신의 진로선택 및 결정에 대한 계획적이고 독립적인 그리고 확고한 태도의 발달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1문항을 제외한 총 46문항을 사용하였고 결정성(10문항), 준비성(10문항), 확신성(10문항), 목적성(8문항), 독립성(8문항)의 5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결정성이 .89, 준비성이 .80, 확신성이 .80, 목적성이 .76, 그리고 독립성이 .74이었다.

2)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차정은(1997)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자기효능감,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8이었다.

3)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척도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척도는 김수리(2005), 박지현·김태현(2005) 등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내용	인원(%)	변인	내용	인원(%)
성별	남	221(45.1)	가정의 경제수준	상	16(3.3)
	여	269(54.9)		중 상	123(25.1)
학년	1학년	168(34.3)		중	273(55.7)
	2학년	146(29.8)		중 하	64(13.1)
	3학년	176(35.9)	하	14(2.9)	
진로상담 경험 및 횟수	없다	385(78.6)	진로상담 시간	없다	385(78.6)
	1~2회	82(16.7)		1시간 미만	31(6.3)
	3~4회	10(2.0)		1~2시간	38(7.8)
	5~6회	9(1.8)		2~3시간	13(2.7)
	7회 이상	4(0.8)		3~4시간	4(0.8)
		4~5시간		4(0.8)	
아버지 연령	30~39세	13(2.7)	5~10시간	12(2.4)	
	40~49세	434(88.5)	10시간 이상	3(0.6)	
	50세 이상	43(8.8)	어머니 연령	30~39세	88(18.0)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21(4.3)		40~49세	387(79.0)
	고졸	193(39.4)		50세 이상	15(3.1)
	대졸	231(47.1)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26(5.3)
	대학원 졸업	45(9.2)		고졸	266(54.3)
아버지 직업	농림어업	6(1.2)		대졸	174(35.5)
	단순노무직	6(1.2)		대학원 졸업	24(4.9)
	기능직	77(15.7)	어머니 직업	농림어업	1(0.2)
	판매 및 서비스직	95(19.4)		단순노무직	12(2.4)
	사무직	115(23.5)		기능직	10(2.0)
	관리직	121(24.7)		판매 및 서비스직	99(20.2)
	전문직	62(12.7)		사무직	73(14.9)
	무직	8(1.6)		관리직	8(1.6)
		전문직		56(11.4)	
		전업주부		231(47.1)	
계		490(100)	계		490(100)

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간 보다 자주,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에 관한 정보와 감정을 교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3이다.

4) 부모지지 척도

부모지지 척도는 최효순(2002)의 가족의 지지 척도의 내용을 부모와 관련된 문항으로 수정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지지, 즉 부모로부터의 정신적으로 긍정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4이다.

5) 형제지지 척도

형제지지 척도는 최효순(2002)의 가족의 지지 척도의 내용을 형제와 관련된 문항으로 수정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형제지지,

즉 형제로부터의 정신적으로 긍정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7이다.

6) 가정의 가치지향성 척도

가정의 가치지향성 척도는 정원식(1998)이 개발한 가정환경 진단검사 중 가정의 가치지향성 척도를 중학생의 상황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가치지향성, 즉 가족구성원의 생활원리로 시사받는 가정의 생활신조가 확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문항을 제외한 총 18문항을 가정의 가치지향성 척도로 사용하였고 물질지향주의(6문항), 사회상승주의(6문항), 전통주의(6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물질지향주의가 .83, 사회상승주의가 .58, 전통주의가 .47로 사회상승주의와 전통주의 요인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7)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척도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척도는 김수리(2005), 박지현·김태현(2005) 등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들과 보다 자주,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에 관한 정보와 감정을 교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5이다.

8) 교사지지 척도

교사지지 척도는 최효순(2002)의 교사지지 척도를 참고로 하여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지지, 즉 교사로부터의 정신적으로 긍정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5이다.

9) 친구지지 척도

친구지지 척도는 최효순(2002)의 친구지지 척도를 참고로 하여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품등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지지, 즉 형제로부터의 정신적으로 긍정적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93이다.

4.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PSSWIN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를 산출하였다.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개인적 변인, 가족관련 변인, 학교관련 변인별로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이들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개인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의 각 하위요인(결정성, 준비성, 확신성, 목적성, 독립성)에 미치는 개인관련 변인(성별, 학년, 학업성적, 자기효능감)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에는 자기효능감, 학업성적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변인은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을 8.1% 설명하였다.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 중 준비성에는 자기효능감, 성별, 학년, 학업성적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년과 학업성적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이 더 높았다. 그리고 개인적 변인은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을 1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에는 자기효능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이 더 높았다. 개인관련 변인은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을 32.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에는 자기효능감, 성별, 학년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그리고 학년이 낮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이 더 높았다. 또한 개인관련 변인은

<표 2> 개인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태도성숙 \ 개인관련 변인	결정성		준비성		확신성		목적성		독립성	
	B	β	B	β	B	β	B	β	B	β
성 별	-.074	-.042	.293	.216***	-.005	-.004	.177	.136**	.071	.061
학 년	-.015	-.014	.124	.153***	-.004	-.005	-.074	-.096*	-.015	-.021
학업성적	-.055	-.091*	.060	.127**	.012	.028	-.029	-.063	-.018	-.045
자기효능감	.522	.290***	.431	.307***	.739	.561***	.223	.166***	.233	.192***
Constant	1.822		1.374		.818		2.584		2.960	
F	10.622***		28.325***		58.352***		6.240***		4.491***	
R ²	.081		.189		.325		.049		.036	

*p<.05, **p<.01, ***p<.001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을 4.9%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진로태도성숙 하위요인 중 독립성에는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고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이 더 높았으며 이에 대한 개인관련 변인의 설명량은 3.6%였다.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개인관련 변인의 영향을 알아 본 결과, 성별은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과 목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과 목적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김재호(2006), 류철휘(2005), 서정선(2002), 이기학과 한종철(1998), 지용근(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보다 성숙한 발달을 보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먼저 진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자 더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들이 진로를 준비할 때 경제적인 보상, 승진 기회 등과 같은 현실적인 요소보다는 일을 통한 자기개발, 대인관계 등과 같은 자아실현적인 측면을 더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학년은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과 목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이 더 높았는데 이는 신윤득(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등의 다음 단계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되므로 진로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더 많아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반면에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은 학년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기학과 한종철(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를 고려할 때에 경제적인 측면 등 보다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은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과 준비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은 더 낮은 반면 준비성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이 높게 나타난 김이선(2006), 김정미(2007), 류철휘(2005)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결정성도 높게 나타났다는 이송미(2005)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 진로에 있어서도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결과에 대해서는 그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볼 때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수행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김재호(2006), 이송미(2005), 조미영(2007), 최은희(2007)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자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미래의 진로에서 역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이 의도하는 진로 및 직업을 잠정적으로 결정해 두고 계획성 있게 진로를 탐색·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개인관련 변인들은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과 준비성에 대한 설명력은 컸으나 목적성과 독립성에 대한 설명력은 매우 미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이 아닌 개인관련 변인을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3> 가족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태도성숙	결정성		준비성		확신성		목적성		독립성	
	B	β	B	β	B	β	B	β	B	β
가족관련 변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124	.081	.016	.014	.118	.107*	.037	.032	-.007	-.007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147	.131*	.444	.512***	.138	.168***	-.035	-.042	.038	.051
부모지지	.059	.055	-.036	-.043	.059	.075	-.014	-.017	.004	.006
형제지지	.010	.012	.057	.080	.074	.113*	.011	.016	-.005	-.008
물질지향주의 가치지향성	-.088	-.084	.012	.025	.010	.013	-.195	-.250***	-.104	-.148**
사회상승주의 가치지향성	-.064	-.049	.028	.005	-.076	-.081	-.112	-.117*	.035	.041
전통주의 가치지향성	.030	.022	.014	.017	-.060	-.060	-.019	-.019	-.105	-.115*
Constant	2.367		1.774		2.231		3.967		3.900	
F	4.453***		25.636***		7.448***		8.282***		2.805**	
R ²	.061		.271		.098		.107		.039	

*p<.05, **p<.01, ***p<.001

2. 가족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부모지지, 형제지지, 가정의 가치지향성)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과 준비성에는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과 준비성이 더 높았고, 가족관련 변인은 결정성을 6.1%, 준비성을 27.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에는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형제지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형제지지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관련 변인은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을 9.8% 설명하였다.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에는 가정의 물질지향주의와 사회상승주의 가치지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물질지향주의와 사회상승주의 가치지향성이 낮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이 더 높았다. 가족관련 변인은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을 10.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에는 가정의 물질지향주의와 전통주의 가치지향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물질지향주의와 전통주의 가치지향성이 낮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이 더 높았고, 가족관련 변인은 진로태도성숙 독립성을 3.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의 영향을 알아본 결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에 영향을 미치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확신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김이선(2006), 박종은(2006), 서정선(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학력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을 포함하는 개념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회적 성공을 의미하게 되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 아래에서 자란 자녀일수록 본인도 부모님과 같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은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과 준비성, 그리고 확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 준비성, 확신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은 부모와 진로와 관련된 대화를 통해 진로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 같은 심리적인 위험 노출을 감소시키고(이상길, 2002) 자녀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감을 획득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게 되므로(허철수·양민철, 2006) 부모와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진로에 대해서도 자신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부모지지는 진로태도성숙의 모든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수리(2005), 노미순(1999), 최은희(2007) 등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부모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기는 하지만 부모지지와 같은 부모의 일반적인 긍정적인 지원보다는 진로에 관한 부모와의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대해 부모의 영향을 보다 세분화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형제지지는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형제지지가 높을수록 확신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와 친구의 중간적 존재로서 청소년에게 가족으로서의 안정감을 주고 친구와 같은 편안함을 주는 형제는 서로가 여러가지 문제로 고민할 때 서로에게 상담자 또는 조언자의 역할을 하게 되므로(전귀연·임주영, 2006: 17) 형제로부터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것이 직업적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가정의 가치지향성 중 물질지향주의는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과 독립성에, 사회상승주의는 목적성에, 전통주의는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물질지향주의, 사회상승주의 가치지향성이 낮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은혜(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가정의 물질지향주의와 전통주의 가치지향성이 낮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이 더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김미진(2002), 서경아(2003)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금전이나 재물의 가치 혹은 권력이나 지위를 중요시하게 되면 그것이 자녀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영향을 받고 형성된 자녀의 가치관은 진로에 대한 이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쳐 진로를 선택할 때에도 경제적인 보상과 승진, 출세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부모 혹은 가족으로부터 돈이나 재물,

그리고 오래된 인습 등을 추구하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온 학생일수록 본인이 사고하는 것에 있어 가족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진로문제에 대해서도 부모 혹은 가족의 생각을 따르려는 경향이 강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전통주의 가치지향성 척도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김미진(2002), 서경아(200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상이하므로 본 연구결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가정의 가치지향성과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족관련 변인들은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에 대한 설명력은 높았으나 결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설명력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학교관련 변인(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교사지지, 친구지지)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태도성숙의 하위요인 중 결정성에는 교사지지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이 더 높았고 학교관련 변인은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을 3.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에는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교사지지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친구와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이 더 높았고 학교관련 변인은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을 22.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에는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친구지지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이 더 높았다. 그리고 학교관련 변인은 진로

태도성숙의 확신성을 8.2% 설명하였다.

또 본 연구의 학교관련 변인은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관련 변인은 친구지지였으며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이 더 높았고 학교관련 변인은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을 3.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학교관련 변인의 영향을 알아 본 결과,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은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을 많이 할수록 진로태도성숙 준비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친구와 진로와 관련된 대화를 자주할수록 진로탐색 활동을 더 활발히 하여 다른 원천으로부터 진로정보를 얻는 것을 즐긴다(Baerbel, 2002)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친구와 진로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진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다양한 곳에서 진로에 대한 탐색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교사지지는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과 준비성, 그리고 확신성에 영향을 미쳤고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결정성, 준비성, 확신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김이선(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와 함께 청소년이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성인인 교사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많이 받는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게 되므로(구자은, 2000) 학교에서 실시되는 진로와 관련된 활동 또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다. 또한 성인인 교사로부터의 지지로 얻은 자신감은 미래의 진로에 대한 자신감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친구지지는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고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확신성과 독립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김이선(2006)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서 자신감이 더 높아지고(Ladd et al., 1996) 긍정적인 자아개

<표 4> 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태도성숙 학교관련 변인	결정성		준비성		확신성		목적성		독립성	
	B	β	B	β	B	β	B	β	B	β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064	.064	.336	.432***	.024	.033	.015	.020	-.006	-.009
교사지지	.173	.161***	.094	.113**	.076	.096*	.007	.009	.043	.060
친구지지	.025	.022	.004	.005	.192	.227***	.015	.017	.132	.170***
Constant	2.329		2.073		2.174		2.985		3.039	
F	6.535***		47.128***		14.476***		.211		6.044***	
R ²	.039		.225		.082		.001		.036	

*p<.05, **p<.01, ***p<.001

념이 형성되기(허재경·김유숙, 2005) 때문에 미래 진로에 대한 성공의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는 시기(김이레, 2003)로 진로문제를 부모와 같은 성인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또래와 함께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교사보다는 친구의 지지가 중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중학생 시기에 친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교관련 변인들은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에 대한 설명력은 높았으나 결정성과 목적성, 독립성에 대한 설명력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목적성에 대한 설명력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족관련 변인군을 보완하여 진로태도성숙의 각 하위요인에 대한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개인관련, 가족관련, 학교관련 변인군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봄과 동시에 전체 변인들 중 영향력이 더 큰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의 성장·발달에 가장 기초가 되는 개인관련 변인을 1단계로 투입하고 다음으로 접하는 환경인 가족관련

변인을 2단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하게 되는 환경인 학교관련 변인을 3단계로 투입하였다.

1)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는 개인관련 변인 중 자기효능감($\beta=.290$), 학업성적($\beta=-.091$)의 순으로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관련 변인은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을 8.1%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 개인적 변인과 함께 가족관련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자기효능감($\beta=.234$),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beta=.117$), 학업성적($\beta=-.112$)의 순으로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관련 변인을 투입함으로써 설명력은 3.6% 증가하여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을 11.7%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 마지막으로 학교관련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자기효능감($\beta=.226$), 학업성적($\beta=-.111$), 교사지지($\beta=.095$)의 순으로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명력은 0.8% 증가하여 개인관련, 가족관련, 학교관련 변인들은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을 12.5% 설명하였다.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에는 자기효능감이 모든 변인들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 및 자신감이 높을수록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념과 선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진로를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5>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진로태도성숙 결정성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개인 관련 변인	성 별	-.074	-.042	-.146	-.084	-.123	-.071
	학 년	-.015	-.014	-.015	-.014	-.009	-.009
	학업성적	-.055	-.091*	-.068	-.112*	-.068	-.111*
	자기효능감	.522	.290***	.422	.234***	.407	.226***
가족 관련 변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111	.073	.125	.083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131	.117*	.125	.112
	부모지지			.009	.008	.007	.007
	형제지지			.007	.007	-.001	-.001
	물질지향주의 가치지향성			-.104	-.099	-.096	-.091
	사회상승주의 가치지향성			-.035	-.027	-.032	-.025
	전통주의 가치지향성			-.031	-.023	-.042	-.031
학교 관련 변인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002	.002
	교사지지					.102	.095*
	친구지지					-.050	-.043
Constant		1.822		1.822		1.680	
F		10.622***		5.766***		4.861***	
R ²		.081		.117		.125	

*p<.05, **p<.01, ***p<.001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에 미치는 각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관련 변인, 가족관련 변인, 학교관련 변인의 순으로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신이 선택하려고 시도하는 진로 및 직업이 어느 정도 확실히 정해져 있는가를 측정하는 차원인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은 가족과 학교 등의 환경적인 변인보다는 개인 스스로의 특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2)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1단계에서는 개인관련 변인인 자기효능감($\beta=.307$), 성별($\beta=.216$), 학년($\beta=.153$), 학업성적($\beta=.127$)의 순으로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관련 변인은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을 18.9%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 가족관련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beta=.404$)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성별($\beta=.192$), 자기효능감($\beta=.186$), 그리고 학년($\beta=.120$)의 순으로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설명력은 16.5% 증가하여 전체 변량의 34.4%를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 학교관련 변인을 첨가·투입한 결과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beta=.325$),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beta=.197$), 성별($\beta=.153$), 자기효능감($\beta=.152$), 그리고 학년($\beta=.099$)의 순으로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명력은 27% 증가하여 개인관련, 가족 관련, 학교관련 변인들은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을 37.1% 설명하였다.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에는 모든 변인들 중 부모나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이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계획 시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는다는 금명자(2003)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친구는 현재 같이 진로를 탐색하는 동료인 반면 부모는 먼저 진로탐색과 진로선택 과정을 경험한 연장자로서 중학생은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에서 보다 믿을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얻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진로에 대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리고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에 대한 각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관련 변인, 가족관련 변인, 학교관련 변인의 순으로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2단계에서 가족관련 변인을 추가하자 설명력이 16.5%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볼 때 개인관련 변인의 영향력 뿐만 아니라 가족관련 변인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미래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에 있어 자신이 가진 특성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주변 환경인 가정에서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6>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진로태도성숙 결정성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개인 관련 변인	성 별	.293	.216***	.260	.192***	.207	.153***
	학 년	.124	.153***	.096	.120**	.080	.099**
	학업성적	.060	.127**	.035	.075	.038	.079
	자기효능감	.431	.307***	.261	.186***	.214	.152**
가족 관련 변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036	-.031	-.039	-.033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353	.404***	.284	.325***
	부모지지			-.016	-.020	.002	.002
	형제지지			.011	.016	-.007	-.010
	물질지향주의 가치지향성			-.001	-.001	-.001	-.001
	사회상승주의 가치지향성			.045	.045	.060	.059
학교 관련 변인	전통주의 가치지향성			.067	.063	.047	.044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153	.197***
	교사지지					.059	.071
	친구지지					-.068	-.076
Constant		1.374		.862		.873	
F		28.325***		22.809***		19.978***	
R ²		.189		.344		.371	

*p<.05, **p<.01, ***p<.001

<표 7>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		진로태도성숙 결정성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개인 관련 변인	성 별	-.005	-.004	-.068	-.053	-.056	-.044		
	학 년	-.004	-.005	-.010	-.014	-.006	-.009		
	학업성적	.012	.028	.006	.014	.005	.011		
	자기효능감	.739	.561***	.699	.531***	.696	.528***		
가족 관련 변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042	.038	.040	.036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048	.059	.069	.084		
	부모지지			.004	.005	-.011	-.013		
	형제지지			.038	.057	.040	.061		
	물질지향주의 가치지향성			-.011	-.015	-.009	-.011		
	사회상승주의 가치지향성			-.057	-.060	-.068	-.072		
학교 관련 변인	전통주의 가치지향성			-.099	-.099*	-.090	-.090*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061	-.084		
	교사지지					-.013	-.017		
	친구지지					.076	.090*		
Constant		.818		1.020		.976			
F		58.352***		23.158***		18.648***			
R ²		.325		.348		.355			

*p<.05, **p<.01, ***p<.001

3)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인관련 변인을 먼저 투입한 1단계에서는 자기효능감(β=.561)이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관련 변인은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을 32.5%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 가족관련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자기효능감(β=.531), 가정의 전통주의 가치지향성(β=-.099)의 순서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명력은 2.3% 증가하여 개인관련, 가족관련 변인은 전체 변량의 34.8%를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 학교관련 변인을 첨가한 결과, 자기효능감(β=.528), 가정의 전통주의 가치지향성(β=-.090), 그리고 친구지지(β=.090)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학교관련 변인을 첨가하자 설명력은 0.7% 증가하였고, 개인관련, 가족관련, 학교관련 변인들은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을 35.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에는 모든 변인들 중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인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 영역에서 역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에 대한 각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개인관련 변인, 가족관련 변인, 학교관련 변인의 순으로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 안정감을 느끼며 미래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높은 확신감과 자신감 정도를 의미하는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은 타인의 영향보다는 개인 스스로의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4)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표 8>에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효능감(β=.166), 성별(β=.126), 학년(β=-.096)의 순이었고 개인관련 변인은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을 4.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가족관련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가정의 물질지향주의 가치지향성(β=-.249)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기효능감(β=.181), 성별(β=.104), 그리고 가정의 사회상승주의 가치지향성(β=-.101)의 순으로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명력은 9.6% 증가하여 개인관련, 가족관련 변인은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을 14.5%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 학교관련 변인을 추가한 결과 가정의 물질지향주의 가치지향성(β=-.252), 자기효능감(β=.190), 성별(β=.104)의 순으로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명력은 0.1% 증가하여 개인관련, 가족관련, 학교관련 변인들은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을 14.6%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		진로태도성숙 결정성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개인 관련 변인	성 별	.177	.136**	.135	.104*	.135	.104*		
	학 년	-.074	-.096*	-.055	-.071	-.055	-.071		
	학업성적	-.029	-.063	-.015	-.033	-.015	-.033		
	자기효능감	.223	.166***	.243	.181***	.255	.190***		
가족 관련 변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002	.002	.002	.002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069	-.082	-.066	-.079		
	부모지지			-.026	-.032	-.021	-.027		
	형제지지			-.006	-.008	-.003	-.004		
	물질지향주의 가치지향성			-.194	-.249***	-.197	-.252***		
	사회상승주의 가치지향성			-.097	-.101*	-.095	-.099		
학교 관련 변인	전통주의 가치지향성			-.010	-.010	-.010	-.010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004	.005		
	교사지지					-.017	-.022		
	친구지지					-.020	-.023		
Constant		2.584		3.556		3.595			
F		6.240***		7.354***		5.780***			
R ²		.049		.145		.146			

*p<.05, **p<.01, ***p<.001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에는 모든 변인들 중 가정의 물질지향주의 가치지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가치관은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는 청소년의 가치관이 반영되는데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은 진로선택 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금전 또는 재물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가정에서 생활한 학생일수록 진로선택 시 사회적인 봉사 및 자아개발보다는 현실적인 욕구를 더 중요시하여 일의 의미를 경제적 보상 등과 같은 외적인 가치에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에 대한 각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관련 변인, 개인관련 변인, 학교관련 변인의 순으로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에는 이미 정립되어 있는 자신의 가치관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학생으로 성장하는 동안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가족이 중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5)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개인적 변인을 투입한 결과 자기효능감(β=.192)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개인적 변인의 설명력은 3.6%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가족관련 변인을 추가로 투입한 결과, 자기효능감(β=.212)과 함께 가정의 물질지향주의(β=-.158)와 전통주의(β=-.125) 가치지향성의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명력은 3.8% 증가하여 개인관련, 가족관련 변인은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을 7.4% 설명하였다.

3단계에서는 학교관련 변인을 추가·투입한 결과, 자기효능감(β=.168), 가정의 물질지향주의 가치지향성(β=-.148), 친구지지(β=.142), 가정의 전통주의 가치지향성(β=-.124)의 순으로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설명력은 2.8% 증가하여 개인관련, 가족관련, 학교관련 변인들은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을 9.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에는 모든 변인들 중 자기효능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진로선택에서도 타인의 의견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진로선택 및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스스로의 의견 및 결정을 따르는 주체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과는 상관관계가 가장 높아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리고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에 대한 각 변인군의 상대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족관련 변인, 개인관련 변인, 학교관련 변인의 순으로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이 어떤

<표 9>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		진로태도성숙 결정성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개인 관련 변인	성 별	.071	.061	.031	.027	.011	.009		
	학 년	-.015	-.021	-.008	-.012	-.014	-.021		
	학업성적	-.018	-.045	-.022	-.055	-.023	-.058		
	자기효능감	.233	.192***	.257	.212***	.203	.168***		
가족 관련 변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030	-.029	-.036	-.036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009	.012	-.007	-.010		
	부모지지			-.014	-.019	-.031	-.042		
	형제지지			-.018	-.030	-.030	-.049		
	물질지향주의 가치지향성			-.111	-.158**	-.104	-.148**		
	사회상승주의 가치지향성			.052	.060	.040	.046		
학교 관련 변인	전통주의 가치지향성			-.115	-.125*	-.114	-.124*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006	.000		
	교사지지					.033	.046		
	친구지지					.110	.142**		
Constant		2.960		3.453		3.349			
F		4.491***		3.493***		3.457***			
R ²		.036		.074		.092			

*p<.05, **p<.01, ***p<.001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있는지, 가족들이 자녀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가 자녀가 진로문제를 자신이 주체적으로 결정하려하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의존하여 결정하려하는지를 의미하는 진로태도성숙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은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관련 변인 중 자기효능감은 진로태도성숙의 모든 하위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성별과 학년은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과 목적성에, 학업성적은 결정성과 준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는 자기효능감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중학생들이 학업을 포함한 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업 혹은 일에서의 다양한 성공 경험을 갖게 하여 스스로가 노력한다면 어떤 일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학생들과 저학년 학생들, 학업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게 함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학생들과 고학년들이 진로에 대한 목적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미래의 진로선택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도와주고 진로선택 시 경제적 보상 등의 현실적 요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을 통한 자기개발이나 대인관계적 요소 역시 중요함을 인식시키는 등의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가족관련 변인 중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이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과 준비성, 확신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형제지지는 진로태도성숙의 확신성에, 가정의 물질지향주의 가치지향성은 목적성과 독립성에, 사회상승주의 가치지향성은 목적성에, 그리고 전통주의 가치지향성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먼저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도록 하고 이 시간에 진로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생각하는 진로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본인이 선택할 진로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에서는 가정에서의 진로지도가 더 용이할 수 있도록 학부모를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부모가 자녀와의 대화에서 바람직한 진로정보를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진로지도 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가정의 학생들도 스스로 노력한다면 부모의 학력이나 아버지의 직업,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자신의 미래 진로선택에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과도한 가정의 물질지향주의, 사회상승주의, 전통주의 가치지향성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과 독립성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 가정에 대한 의식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자아실현 혹은 사회를 위한 봉사정신 등의 건설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학교관련 변인 중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이 진로태도성숙의 준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교사지지는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과 준비성, 확신성에, 친구지지는 확신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서로의 진로에 대해 토론하거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서로의 진로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간의 진로태도를 성숙시킬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평상시 교사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대화와 인정,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친구들과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많이 지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 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을 알아본 결과, 중학생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과 준비성, 확신성에는 개인관련 변인이, 진로태도성숙의 목적성과 독립성에는 가족관련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로서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개인 뿐 아니라 가정환경의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 변인들이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여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에 대한 진로지도는 개인관련, 가족관련, 학교관련 특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현재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지도를 가정으로까지 확대 실시 하는 등 중학생들의 진로지도에 있어 가정의 역할을 더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진로태도성숙과 미래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는 진로지도·교육 프로그램을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시행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전체 변인들의 영향력에서 결정성과 목적성, 독립성에 대한 설명력이 준비성과 확신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독립변인들이 결정성과 목적성, 독립성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독립변인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변인으로 개인관련 변인, 가족관련 변인, 학교관련 변인만을 선정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 다른 변인들을 더 많이 구성하여 이들의 상대적인 영향을 밝힐 수 있다면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개인과 주변 환경의 상대적인 영향력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선행연구와는 달리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진로태도성숙의 결정성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고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적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은정·최은진·김나연·김경남·박미형·이난희(2006).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수준 및 보건의식 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강주영(2006). 부모애착과 정서지능이 자기지각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관구(1997). 초등학교의 진로성숙도 및 인성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인규·정홍식·안창규(2007). 학업성취수준에 따른 진로장애 요인의 비교 분석. 청소년학연구, 14(1), 127-154.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혜선(2002).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적 지지 및 진로성숙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경·이희경(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723-741.
- 금명자(2003). 상담사례를 통해 본 청소년의 변화.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 48, 95-113. 한국청소년상담원 연구보고서.
- 김미진(2002). 가정의 가치지향성, 집단성격 및 심리적 환경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리(2005).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이재창(2007). 부모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93-407.
- 김옥숙(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고등학교의 자아존중감

-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이레(2003). 사회적 지지와 고등학생의 학업 자아개념 및 시험불안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이선(2006).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호(2006). 초등학생의 가족체계와 자기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미(2007). 중학생의 부모애착, 갈등적 독립,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및 진로태도성숙도와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2000).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서울 : 동문사.
- 나인애(1999). 성과 학업성적에 따른 진로의식 성숙도 : 초등학교 6학년생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미영(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미순(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미화(2002).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과 진로결정 스트레스와의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천희(2005). 중학생의 배경변인과 지각된 부모양육 태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용관(200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종은(2006). 여중·고등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양육 태도 및 애착관계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현·김태현(2005). 대학생의 성 행동에 관한 연구 : 부모와의 의사소통 특성과 대학생의 성태도 및 성에 관한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1), 75-101.
- 백남근(2002).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경아(2003). 가정환경이 초등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경(2006). 진로집단상담이 진로태도 성숙과 중학생의 진로 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불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선(2002).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교 및 가정배경 변인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아(2007). 학교중단 청소년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자(2002). 자아정체감과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윤득(2006).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성숙 및 학업응집력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영·김누리(2004). 청소년기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간의 관계탐색. 아동교육, 13(2), 185-199.
- 신주연(200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의 관계.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혜정(2005). 청소년의 학교 급별(초,중,고)에 따른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및 적응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미희(2002). 대안학교 고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자아정체감간의 관계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엠브레인(2007). www.embrain.com.
- 유영미·문승태(2005). 고등학생의 사회적지지 및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8(2), 243-257.
- 이기학(1992). 개인적 특성이 직업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송현정·임희경·전윤경(2004).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주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9(2), 53-65.
- _____·한종철(1997). 고등학생의 성별 및 계열별에 따른 진로태도 성숙 정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9(1), 335-349.
- _____ (1998).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개인적 특성 및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0(1), 167-189.
- 이두만(1998). 초·중학생의 진로의식 성숙에 관한 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길(2002). 어머니와의 축진적 의사소통, 가족적응성, 가족 응집성, 어머니 취업여부에 대한 만족도가 여고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 서울지역 일반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무(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도(2003). 청소년 진로의사결정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2005).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자아효능감과의 관계.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국(2000). 중등학생의 진로성숙 수준과 개인의 내·외적

- 변인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혜(2003).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가정의 가치지향성 및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박창남(2004).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 임병희(1996). **가정환경이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이동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유진(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 및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지영숙·문숙재·이기영·이연숙(2004). **가정관리학**. 서울 : 신정.
- 장석민(1985). **진로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_____(1994). **미래 사회에 대비한 진로 교육의 방향**. **진로교육 연구, 2**, 1-25.
- _____. 임두순·송병국(1991).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전귀연·임주영(2006). **형제관계**. 서울 : 신정.
- 정옥분(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 학지사.
- _____(200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정원식(1998). **가정환경 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 코리안 테스트 센터.
- 조명실(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이 진로성숙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미영(2007).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내외통제성 및 불안이 진로 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아미(2002). **청소년의 성별과 성역할정체감이 진로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4(1)**, 91-108.
- 지용근(2005). **성역할 정체감, 부모양육태도가 초등학교의 진로 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8(2)**, 199-217.
- 차정은(1997).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희(2007).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와 진로성숙 도와의 관계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실(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갈등과 심리적 적응 및 진로태도성숙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정미·김미란(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 특성과 만족도 및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373-394.
- 최효순(2002). **초기 청소년들의 진로태도성숙과 사회환경 및 개인변인과의 인과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2006). **사회통계조사 보고서**.
- 허유미(2007).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도와 심리적 독립, 자기주장성 및 자아개념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재경·김유숙(2005). **부모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0(4)**, 483-495.
- 허철수·양민철(200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상태와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7(1)**, 15-36.
- Astin, H. S.(1984). **The meaning of work in women's lives : A sociopsychological model of career choice and work behavior**. *Counseling Psychologist, 12*, 117-126.
- Baerbel, K.(2002). **The role of personality, parents and peers in adolescents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Adolescence, 25(1)*, 19-30.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Betz, N. E., & Luzzo, D. A.(1996). **Career assessment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4*, 313-328.
- Fouad, N. A.(1993). **Cross-cultural vocational assessmen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2(1)*, 4-13.
- Helsen, M., Vollebergh, W., & Meeus, W.(2000). **Social support from parents and friends and emotional problem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3)*, 319-335.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Super, D. E., Savickas, M. L. & Super, C. M.(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s**. In Brown, D & Brooks, L(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121-178. San Francisco : Jossey-Bass.

□ 접수일 : 2008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08년 08월 06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9월 30일

[부 록]

<부표 1>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개인관련														
1.성별	-													
2.학년	-.017	-												
3.학업성적	-.005	.014	-											
4.자기효능감	-.097 *	.002	.303 **	-										
가족관련														
5.지위	.097 *	-.044	.186 **	.184 **	-									
6.부모대화	.083	.076	.221 *	.331 **	.183 **	-								
7.부모지지	-.027	-.036	.089 *	.285 **	.108 *	.520 **	-							
8.형제지지	.090 *	.076	.123 **	.228 **	.042	.258 **	.407 **	-						
9.사회상승	-.118 **	-.006	.135 **	.010	-.005	.126 **	-.037	-.018	-					
10.물질지향	-.106 *	.079	-.002	-.051	-.109 *	-.139 **	-.316 **	-.091 *	.454 **	-				
11.전통주의	-.239 *	-.017	-.026	.122 **	.008	.192 **	.149 **	.108 *	.283 **	.215 **	-			
학교관련														
12.친구대화	.306 **	.180 **	.142 **	.322 **	.189 **	.509 **	.228 **	.277 **	.003	-.061	.085	-	-	
13.교사지지	-.094 *	-.016	.092 *	.286	.004	.244 **	.274 **	.235 **	.007	-.125 **	.135 **	.242 **	-	
14.친구지지	.150 **	.075	.172 **	.356	.176 **	.350 **	.320 **	.266 **	.061	-.104 **	.032	.502 **	.255 **	-

주) 1.성별(1:남학생, 2:여학생)

2.학년(1:1학년, 2:2학년, 3:3학년)

3.학업성적(1:상위10%이내, 2:상위30%이내, 3:상위50%이내, 4:하위50%이내, 5:하위30%이내, 6:하위10%이내)

5.지위 : 가정의 사회·경제적지위

6.부모대화 : 부모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12.친구대화 : 친구와의 진로에 관한 의사소통

*p<.05, **p<.01